07-14호

Regional Economic Focus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8월 28일

ISSN 1976-0507 Vol. 1 No. 14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과 시사점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soy@kiep.go.kr, Tel: 3460-1098)

▣ 중국 반환 당시 중계무역과 국제금융 중심지라는 홍콩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반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홍콩의 중요한 지위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며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이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006년 홍콩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 2위, 세계 6위를 차지하였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홍콩의 IPO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IPO 금액 중 H주의 비율이 평균 74%로서 홍콩증시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홍콩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금융중심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전략을 세움.

▣ 홍콩, 상하이, 다롄 등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금융중심도시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있으며 타깃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한국 정부의 금융허브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들 지역의 허브화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 분석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분야에 대한 특화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금융산업 발전과 홍콩의 위상

1) 중국 반환 이후 10년, 건재한 홍콩의 위상

■ 홍콩은 그동안 중국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안정된 금융시스템, 세계적인 물류 및 통신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기능을 해왔음.

– 중국 반환 당시 중계무역과 국제금융 중심지라는 홍콩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반환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홍콩의 중요한 지위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임.

표 1. 홍콩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항목	단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GDP 성장률	%	3.9	10.0	0.6	1.8	3.2	8.6	7.5	6.9
명목 GDP	십억 달러	144	169	167	164	158	166	178	190
1인당 GDP	달러	23,429	25,316	24,802	24,273	23,541	24,444	26,095	27,677
CPI	%	9.0	-3.7	-1.6	-3.0	-2.6	-0.4	0.9	2.0
소매판매 증가율	%	4.7	3.8	-1.2	-4.1	-2.3	10.8	6.8	7.3
수출 증가율	%	-	16.0	-5.8	4.9	12.1	15.9	11.2	9.7
수입 증가율	%	-	18.6	-5.5	3.1	12.2	17.0	10.2	11.6
FDI 유입	백만 달러	6,213	61,924	23,777	9,682	13,624	34,032	35,897	-

자료: Global Insight.

2) 금융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

■ 홍콩은 향후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2006~11년)에서 홍콩의 금융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였음.

○ 중국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시스템을 활용하고, 세계적 규모의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여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고자 함.

- 금융산업과 더불어 무역 및 물류·해운·관광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힘입어 향후 홍콩 경제는 5~6% 정도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3월 홍콩정부가 발표한 2008~11년의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금융, 무역, 물류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경제통합 진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연 4.5%(명목 경제성장률 연 6%)로 전망함.

2.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

가. 홍콩 금융시장의 규모와 발전 원동력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은행과 금융 중심지로 부상

■ 2006년 말 현재 홍콩에는 202개의 은행과 84개의 대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은행과 금융 센터로 부상함.

- 국제무역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대출 총액과 홍콩 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대출된 금액은 각각 미화 195억 달러와 40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홍콩은 아시아의 3대, 세계 6대 외환시장이며 2004년 기준으로 일일 외환거래량(net daily turnover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이 1,020억 달러에 달함.

- 2006년 홍콩의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 2위, 세계 6위를 차지하였는데 현재 성장기업시장(GEM)의 198개 기업을 포함하여 1,173개의 상장기업이 있으며 시가총액은 1조 7,150억 달러에 이름.

- 한편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벤처 자금 센터로서 2006년 중반 기준으로 지역의 총 자본 풀의 29%를 운용하고 있음.

표 2.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시가총액(2007년 3월 말 기준)

(단위: 십억 달러, 개)

구 분	Main Board		GEM Board	
	2006년 3월 말	2007년 3월 말	2006년 3월 말	2007년 3월 말
상장기업수	940	983	201	197
(H Shares)	(81)	(96)	-	(45)
(Red-Chips)	(86)	(86)	-	(4)
시가총액	HKD 9,332B	HKD13,442B	HKD 84B	HKD109B
	(USD 1,196B)	(USD1,723B)	(USD 11B)	(USD14B)
평균 PER	14.58 배	15.97 배	24.53배	26.73배

자료: 주홍콩총영사관(2007. 5), 『홍콩기업공개제도 및 2007년도 전망』.

주: Main Board란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해당하며, INDEX에는 우량주로 구성된 HSI, H-Share로 구성된 HSCEI 및 Red-Chip으로 구성된 HSCCI가 있다. H Share는 중국 국유기업의 주식 중 홍콩증시에 직상장된 주식으로서 주식명에 "-H" 가 붙는다. (예: Air China Ltd-H) Red-Chip은 중국 국영기업이 홍콩에 직상장하지 않고 중국법인이 아닌 상장법인(Listing Vehicle)을 대개 역외 조세회피 지역(케이만 군도 등)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경영권은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다. GEM (Growth Enterprise Market) Board는 Main Board 상장기준에 매출액 및 수익 등이 못 미치는 기업들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하여 상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시장으로서, 한국의 코스닥에 해당되며 거래규모 및 투자안정성 측면에서 Main Board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2) 홍콩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 중국효과

■ 홍콩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은 '중국효과(China effect)' 즉, 연평균 10% 이상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배후지로 두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데 기인함.

- 중국정부는 홍콩의 주권 반환을 전후하여 특혜 정책들을 내놓았고 이것이 홍콩 금융시장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

○ 1993년 H주(중국 본토기업 주식)의 상장 · 거래를 홍콩에 최초로 허용하고, 2004년에는 홍콩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안화 업무를 인가했으며, 2007년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

- 또한 홍콩은 중국 본토의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이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서비스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향후 홍콩의 발전에는 중국 본토와의 금융협력을 지속적으로 공고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었고, 중국이 시장을 열수록 홍콩의 가치와 역할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 홍콩의 전략임.

○ 홍콩 금융기관은 1조 달러가 넘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 기관투자가의 해외 증시투자를 허용한 '적격국내기관투자자제도(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s: QDII)'의 확대 시행을 기회로 활용함.

○ 또한 점차적으로 홍콩에서 위안화 유통이 자유화되고, 위안화 채권 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홍콩의 금융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홍콩 금융당국(HKMA)이 발간한 2006년 연례보고서에는 홍콩이 세계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국 대륙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홍콩을 중국의 국제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는 '1-3-5 청사진(1-3-5 Blueprint)'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은 One-positioning으로 중국이 홍콩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나가는 금융업무의 중심으로서 포지셔닝하도록 함.

○ 3은 Three-dimension으로 홍콩과 중국 사이에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이며 상호작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건설함.

○ 5는 Five-areas로 금융협력을 실행할 구체적인 5가지 실천분야로서 홍콩의 금융상품이 중국에 확대판매되고, 홍콩을 통한 중국의 투자자, 펀드레이저,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해외 이동이 확대되며, 홍콩 금융상품의 중국내 거래가 허용되고, 홍콩에서 위안화로 표시된 금융거래가 증가하며, 홍콩과 중국 간의 금융 인프라 연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 등임.

나. 기업공개 시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

1) 세계적인 기업공개(IPO) 시장으로의 위상

■ 홍콩은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시장에서 세계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IPO 부문에서 홍콩증시가 뉴욕증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중국 본토 기업들의 대규모 홍콩증시 상장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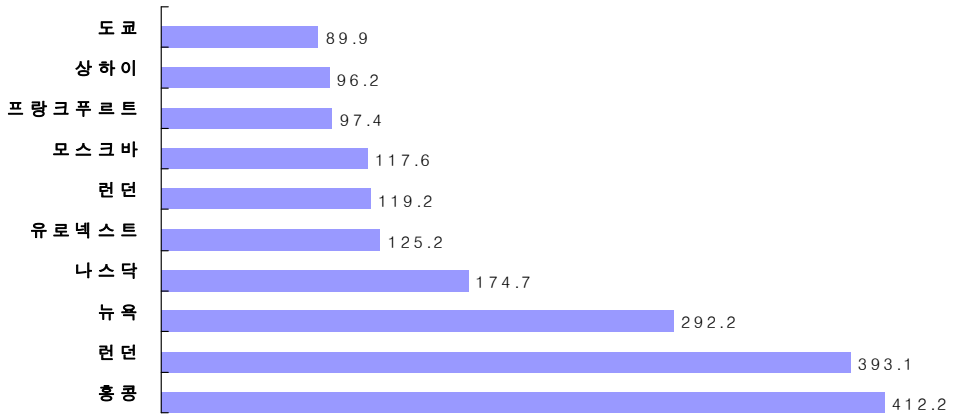
○ 홍콩증권거래소는 지난 1993년 이래 300개 이상의 본토 기업을 상장시켜 200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음.

○ 중국은행은 2006년 홍콩증시 단독 IPO를 통해 6년래 최대 규모인 112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함.

- 홍콩증시는 중국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세계적 수준의 재무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증시로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홍콩증시가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이유로 글로벌 자본의 집중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가 거론되고 있음.

그림 1. 2006년 증권시장 기업공개(IPO) 규모 세계 순위

(단위: 미화 억 달러)



자료: Thomson Financial.

- 홍콩증시에 상장된 기업수는 2007년 3월말 현재 1,180개(Main Board 983, GEM 197개)이며, 시가총액은 미화 1조 7,370억 달러(Main Board 1조 7230억 달러, GEM 140억 달러), 평균 PER는 Main Board 15.97, GEM 26.73임.

1) 중국기업이 기업공개를 위해 홍콩을 선호하는 이유는 뉴욕증시 상장기준이 엄격한데 비하여 상장이 용이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 홍콩증시의 기업공개(IPO) 실적은 2004년 미화 117억 달러(67건), 2005년 219억 7천만 달러(67건), 2006년 386억 달러(61건)[2]로 금액규모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특히 H주 비율이 74%를 차지하여 홍콩증시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2) 중국기업의 대형 기업공개(IPO) 유치

■ 최근 3년간 홍콩의 IPO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IPO 금액 중 H주의 비율이 평균 74%로서 홍콩증시가 중국기업의 자금조달 창구(Fund Raising Center)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음.

- 2007년에는 China Citic Bank(中信银行), China Everbright Bank(中国光大银行) 등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중국기업의 대형 IPO가 연이어 있을 예상됨.

표 3. 2004~06년 3년간 IPO 현황

(단위: 개, 미화 백만 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합 계
IPO 건수	67	67	61	195
IPO 금액	11,702	21,974	38,618	72,294
(H Share)	(4,934)	(15,672)	(32,648)	(53,254)
(H주 비율)	(42.2%)	(71.3%)	(84.5%)	(73.7%)

자료: 주홍콩총영사관(2007. 5), 『홍콩기업공개제도 및 2007년도 전망』.

- 한국의 주홍콩총영사관에서 인용한 홍콩의 IPO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홍콩의 전체 IPO에서 상위 5위를 석권한 중국 국영기업 H주의 금액비중은 전체 IPO 금액(미화 약 386억 달러)의 77%에 달하는 298억 달러에 달함(표 4 참고).

○ 중국기업의 홍콩상장주식인 H주와 Red-chip(전체 25건) IPO 금액은 330억 달러에 달해 전체 홍콩 IPO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넘어섰음.

○ 이처럼 세계 시장을 겨냥한 중국기업들이 홍콩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거쳐 가려고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 [그림 1]과 [표 3]의 2006년 IPO 금액의 차이는 자료출처에 따른 차이임.

표 4. 2006년도 홍콩증시 금액기준 30위 IPO 현황

(단위: 미화 달러)

순 위	회 사 명	금 액	종 류
1	IND & COMM BANK OF CHINA LTD - H	13,929,534,615	H-SHARE
2	BANK OF CHINA LTD - H	9,670,171,859	H-SHARE
3	CHINA MERCHANTS BANK - H	2,411,538,462	H-SHARE
4	CHINA COMMUNICATIONS CONST-H	2,064,102,564	H-SHARE
5	CHINA COAL ENERGY CO - H	1,685,617,269	H-SHARE
6	CHAMPION REIT	806,990,000	COMMON
7	SHUI ON LAND LTD	794,780,910	COMMON
8	KINGBOARD LAMINATES HOLDING	743,269,231	COMMON
9	SHIMAO PROPERTY HOLDINGS LTD	476,862,179	COMMON
10	NINE DRAGONS PAPER	435,897,436	COMMON
11	CHINA COMMUNICATIONS SERVI-H	364,210,846	H-SHARE
12	SUNLIGHT REAL ESTATE INVEST	348,456,667	COMMON
13	GREENTOWN CHINA HOLDINGS	342,158,027	COMMON
14	CHINA BLUE CHEMICAL LTD - H	341,025,641	H-SHARE
15	SHANGHAI JIN JIANG INTL HO-H	310,256,410	H-SHARE
16	ZHAOJIN MINING INDUSTRY - H	280,910,769	H-SHARE
17	DALIAN PORT (PDA) CO LTD-H	277,307,692	H-SHARE
18	ZHUZHOU CSR TIMES ELECTRIC-H	244,995,897	H-SHARE
19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H	230,652,372	H-SHARE
20	HUNAN NON-FERROUS-H	227,526,538	H-SHARE
21	HAITIAN INTERNATIONAL HLDGS	202,057,692	COMMON
22	GOLDEN EQGLE RETAIL	181,730,769	COMMON
23	NEO-NEON HOLDINGS LTD	176,923,077	COMMON
24	MING AN HOLDINGS CO LTD/THE	168,798,451	Red Chip
25	SHANGHAI PRIME MACHINERY-H	161,689,769	H-SHARE
26	SPG LAND HOLDINGS LTD	153,205,128	COMMON
27	XINGDA INT'L HOLDINGS	152,420,513	COMMON
28	TIANJIN PORT DVLP HLDS LTD	139,312,821	Red Chip
29	LINGBAO GOLD CO-H	110,359,615	H-SHARE
30	NAGACORP LTD	91,666,667	COMMON
총계		37,524,429,886	

자료: 주홍콩총영사관(2007. 5), 『홍콩기업공개제도 및 2007년도 전망』에서 인용하여 필자가 재구성.

다. 역내 허브경쟁과 홍콩의 전략

1) 상하이의 세계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 중국정부는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를 중국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음.

- 중국정부는 1991년부터 상하이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2002년 상하이의 금융허브 구상은 '산뿌저우(三步走)'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2005년까지 금융허브의 기초를 마련하고, 2010년 골격을 형성한 뒤 2020년에는 아태지역의 최대 금융허브를 건설한다는 구상임.

○ 상하이 시는 2006년 말에 2010년까지 상하이 금융시장의 거래 규모를 80조 위안(약 9,680조 원)으로 키우고, 동시에 상하이 상품선물거래소의 거래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만들며 상하이 은행권의 예금 잔액을 4조 5,000억 위안으로 육성하는 등의 금융허브 추진 5개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발표하였음.

- 현재 상하이는 금융업 생산총액이 2006년 한 해 799억 위안, 증시 IPO 규모가 1,180억 위안(약 14조 원)을 기록하였고, 이미 2007년 상반기 중 상하이 증시의 IPO 규모는 1,690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외국계 금융기관 수 106개를 기록하며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가고 있음.

○ 상하이 푸둥(浦東)에는 씨티은행, HSB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금융회사와 중국 현지은행 350여 개가 밀집해 있으며, 2006년 9월 중국 최초의 금융선물거래소가 상하이에 설립되었음.

○ 한편 중국정부가 2005년 8월 인민은행의 7개 부서를 상하이로 이전하고 인민은행 상하이 본점을 설립한 것은 상하이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음.

○ 2006년 말 외자은행의 위안화 소매금융을 허용함에 따라 HSBC, 씨티, ABN암로 등 9개 글로벌 은행이 현지법인 설립을 신청할 당시, 모두 상하이를 법인 설립지로 선택하였음.

2) 랴오닝성 다롄의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전략

■ 중국은 랴오닝성 다롄에 '싱하이만 금융시티(Xinghai Bay Finance City)'를 개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11차 5개년 개발계획 중에는 랴오닝성의 다롄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총 240만㎡ 규모로 랴오닝성과 다롄시 정부가 모두 200억 위안을 투자한 싱하이만 금융특구는 지리적 이점과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

겠다는 구상 아래 건설이 진행 중임.

○ 다롄은 입지조건과 항공, 물류의 발전, 배후의 시장 발달 등 다양한 성공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롄은 2006년 중국 10대 금융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6월 말 현재 다롄의 금융자산 규모는 5,500억여 위안으로 매년 1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중국 3대 상품거래소 중 하나인 다롄 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량은 2억 4,100만 건으로 중국 전체 거래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5조 2,22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거래액 중 25%를 차지하고 있음.

3) 상하이, 싱가포르에 대한 홍콩의 경쟁 우위

■ 이와 같이 역내 금융허브 경쟁이 가시화 된 상황에서 홍콩이 중국의 상하이나 싱가포르에 의해 국제금융지로서의 위상을 추월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싱가포르는 홍콩이 중국 본토와 같은 강력한 배후지를 두고 금융시장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도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와 연대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상하이의 경우 금융거래에 필수적인 법치가 미흡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성숙도가 낮으며, 금융시장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서 많이 뒤져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홍콩이 추월당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4) 장기적 생존을 위한 홍콩의 고민

■ 그러나 홍콩이 중국기업들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역할로 그 위상을 장기적으로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경제분석가 앤디 씨에(Andy Xie)는 홍콩이 좁은 의미의 금융센터 역할을 놓고 상하이와 경쟁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홍콩은 장기적으로 스위스처럼 세계 부유층의 사적 자산을 운용하는 프라이빗 뱅킹 허브로 발전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한편 홍콩이 뉴욕이나 런던을 따라잡을 고부가가치의 금융센터가 되기 위해서 중국 본토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 홍콩이 발전해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중심된 논의에는 발전된 경제, 선진화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에 집중함으로써 같은 분야의 여타 중국 본토의 도시들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
  - ○ 즉, 홍콩증시의 발전이 상하이 증시 등 중국 본토 금융시장의 동반 성장세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임.

3. 평가 및 시사점

1) 금융 분야별로 특화된 금융중심지 형성

■ 중국 본토의 발전에 힘입어 부상하고 있는 홍콩의 견고한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금융허브 육성도시들은 서로 상호보완성을 가지면서도 결국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임.

- 이 과정에서 은행,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 분야별로 특화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요고객층에 따라 시장이 분할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음.
  - ○ 즉,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 소수 부유층과 중산층 대상 등으로 고객층에 따른 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 금융허브와 중국 대륙 공략 거점으로서의 홍콩

■ 중국의 중앙정부 및 광둥성, 심천 등 홍콩과 인접한 지방정부는 중국과 홍콩의 협력수준 제고를 통해 대주강삼각주의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홍콩의 회계, 광고, 관리 등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광둥성 기업(특히 민영기업)들의 국제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돕고, 민영기업들은 홍콩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형식임.

3) 한국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은 홍콩 유수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과 제휴 · 협력을 통해 차이나 리스크를 극소화하면서도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홍콩을 국제 금융 허브와 더불어 중국 대륙 공략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과제라 할 것임.

■ 한국정부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아시아 경제의 부상을 기회로 하여 한국경제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GDP 내에서 금융부분의 기여도가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허브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로드맵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임.

-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화권 금융중심지와 전략적 허브 육성 지역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이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분야를 선정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벤치마킹 사례로서 홍콩의 경험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홍콩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경쟁지역들과 비교한 자체적인 우위를 점하여 현재 아시아 최고의 국제 금융중심지로 자리잡게 된바, 한국은 홍콩과의 금융협력 확대와 홍콩의 발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의 금융허브 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한편 중국의 상하이는 향후 홍콩 수준의 국제 금융중심지로서, 다롄은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서 중국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정부가 구상하는 금융허브가 런던이나 뉴욕처럼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 모델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금융수요를 집중시켜 소화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들 도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인접하여 있으며 타겟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들 지역의 허브화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연구 분석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융분야에 대한 특화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